

#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에 나타난 유토피아 구상과 그 이념사적 위상

신 지 영 (서울대)

무질의 소설 『특성 없는 남자 Der Mann ohne Eigenschaften』(1930/32)는 “서양의 유토피아적 사고를 종합해”<sup>1)</sup> 놓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토피아’ 내지 ‘유토피아적인 것’이라는 범주가 소설의 서사적, 이념적 틀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의 무질연구는 ‘유토피아적인 것 das Utopische’<sup>2)</sup>이라는 범

- 
- 1) W. Voßkamp: Traditionen des utopischen Denkens bei Musil, In: F. Jäger u. J. Straub (Hrsg.): Was ist der Mensch, was Geschichte? Bielefeld 2005, S. 347.
  - 2) 유토피아에 대한 개념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토피아는 철학적-인류학적 가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특정한 의식의 형태나 사고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유토피아를 어떤 류의 텍스트들의 내재적인 구조들과 연관지를 경우 그것은 특정한 서술적, 이미지적 처리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모티브들을 일컫는다 (문학적 장르로서의 유토피아). 그리고 심리적-원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토피아는 집단적인 소망상 내지는 환상상들 (예를 들어 에덴정원, 황금시대, 죽은 자들의 섬 등)을 나타낸다. Vgl. W. Voßkamp, Einleitung, In: W. Voßkamp, Utopieforschung Bd. 1, Frankfurt am Main 1985, S. 3f. 이 글에 ‘유토피아적인 것’이란 첫 번째 개념정의, 즉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만하임과 블로흐 그리고 루이에의 철학적-인류학적 유토피아개념을 말한다. 사회학자 만하임은 그의 주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Ideologie und Utopie』(1929)에서 사회적인 존재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존재 Sein’에 대해 ‘존재와 일치하는’ 표상과 ‘존재를 초월하는’ 표상이 있다고 가정한다. 후자를 규정짓는 인간의 의식상태를 만하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작용을 할 경우에는 ‘유토피아적 utopisch’ 의식, 의식이 현실의 ‘존재’를 공고히하는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 ideologisch’ 의식이라 부른다 (vgl. K.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Frankfurt a. M. 1965, S. 169-171). 블로흐는 만하임의 ‘유토피아적 의식 das utopische Bewußtsein’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토피아주의가 “인간의식의 기본특징”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현실 전부의 기본정조” (E. Bloch: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m Main 1998, S. 5)라고 하며 유토피아를 존재론적으로 근거지운다. 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루이에의 유토피아를 “가능성들을 정신적으로 실험하는 것” (R. Ruyer: Die utopische Methode, In: A. Neusüss (Hrsg.): Utopie. Neuwied, Berlin 1968, S. 339-360, hier S. 339)으로 정의한다. 무질은 소

주가 주인공 울리히의 실존방식—그는 ‘가능성의 인간 *Möglichkeitensmensch*’이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설의 문체원리이자 동시에 작가의 창작원리임을 입증했다.<sup>3)</sup> 그러나 이 경우 ‘유토피아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소설에 나타나는 유토피아 자체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sup>4)</sup> 이에 반해 본고는 『특성 없는 남자』가 현대의 ‘정진’으로<sup>5)</sup> 통용되는 이유를 이 소설이 ‘현대 *Moderne*’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현대의 철학적 담론들을 선취할 뿐 아니라 현대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정신적 실험으로 제시하는 데서 찾는다. 나아가 본고는 『특성 없는 남자』에 나타난 유토피아 구상은 현대의 문제점을 현대의 원리로 극복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말한 의미에서 ‘현대의 기획’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

설에서 “가능성감각 *Möglichkeitensinn*”을 “의식적인 유토피아주의 *bewußte(n)r Utopismus*”라고 부르고 유토피아를 “실험”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하임과 블로흐의 ‘유토피아적 의식’과 루이에의 ‘유토피아적 방법’과 상통한다. 이 철학적·인류학적 개념정의가 소설에 나타나는 유토피아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른 두 (심리학적, 문학적) 개념들보다 적합한 이유는 그것이 소설의 중심개념인 ‘가능성감각’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유토피아 구상들을 함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 구상들은 유토피아주의의 발현으로 생긴 구체적인 미래상이다. 포스캄프는 이 관계를 블로흐의 말을 빌어 “유토피아적인 것의 상수 *Invarianz des Utopischen*”와 “유토피아라는 변수 *Varianz der Utopien*” (*W. Voßkamp: “Grundrisse einer besseren Welt”, In: S. Moses u. A. Schöne (Hrsg.): Juden in der deutschen Literatur. Frankfurt am Main 1986, S. 321*)라고 표현한다.

- 3) Vgl. A. Schöne: Zum Gebrauch des Konjunktivs bei Musil, In: R. Villgrader u. F. Krey (Hrsg.): *Der utopische Roman*. Darmstadt 1973, S. 355-388.
- 4) 이는 쇠네가 “유토피아의 이율배반 *Antinomie der Utopie*” (A. Schöne, ebd., S. 387)이라고 말할 것과 관련이 있다. 유토피아주의라는 원리는 여기서 부정부주의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한 가능성에서 다른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내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자세로서의 유토피아주의가 강조되고 절대화되면 이상향인 유토피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유토피아주의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유토피아주의에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모순된 관계에 처하게 된다.
- 5) 베어텔스만사(社)와 리터라투어 하우스 뮌헨 *Literaturhaus München*이 지난 199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절의 『특성 없는 남자』는 비평가들, 출판사편집인, 저술가들에 의해 독일어로 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소설로 선정되었다. 카프카의 『심판』,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쾰트도이체 짜이퉁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5일자 14면 참조.

## I. 현대의 변증법

무질 스스로의 묘사에 따르면, 『특성 없는 남자』에서는 “현대인의 실존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 제기되고 나아가 아주 새로운, 그렇지만 가볍고 ban 어적이면서 또한 철학적으로 심오한 방식으로 답변되고 있다.”<sup>6)</sup> 또한 무질은 그의 소설이 “세계를 정신적으로 극복하는데”<sup>7)</sup>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작가 자신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의 문제의식과 이로부터 주어진 소설의 과제는 현대와 현대의 특수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무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합리성과 신비주의 Rationalität u. Mystik”<sup>8)</sup>의 모순적 공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합리성이라는 말로 “자연과학, 수학 그리고 산업과 더불어 상승한 실증주의의 정신”(EuR, 1083)<sup>9)</sup>을 지칭한다. 현대의 과학은 사물과 인간을 공식들의 체계로 해체할<sup>10)</sup> 뿐만 아

---

6) Musil: Curriculum vitae, In: Gesammelte Werke, Bd. 7 Prosa, Autobiographisches und Achorismen (이하에는 PAA로 표기하고 쪽수 병기). Hrsg. von Adolf Frisé. Reincke b. Hamburg 1981, 950: “Die Sinnfragen der Existenz des modernen Menschen [...] aufgeworfen und in einer ganz neuartigen, aber sowohl leicht-ironischen wie philosophisch tiefen Weise beantwortet.”

7) Ebd., S. 942.

8) Musil: Tagebücher I. Hrsg. von Adolf Frisé. Reincke b. Hamburg 1983 (이하에는 Tb I로 표기하고 쪽수 병기), 389.

9) Musil: Das hilflose Europa, In: Gesammelte Werke, Bd. 8 Essays und Reden (이하 본문에는 EuR로 표기하고 쪽수 병기), 1083: “[...] jenes Geist der Positivität, der mit den Naturwissenschaften, der Mathematik und der Industrie heraufkam [...]”

10) 무질이 ‘자아의 해체 Auflösung des Ichs’라는 측면에서 특히 엄두에 둔 것은 에른스트 마흐의 경험비판론 Empiriokritizismus이다. 무질은 『마흐 학설의 비판에 대한 논문 Beitrag zur Beurteilung der Lehren Machs』(1908)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흐는 그의 저서 『감각의 분석과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관계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und das Verhältnis des Physischen zum Psychischen』(1900)에서 인간을 감각들의 총체로 보고 우리가 자아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반형이상학적 서문”에서 마흐는 “자아는 구출할 길이 없다 Das Ich ist unrettbar” (E. Mach: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Jena 1900, S. 20)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마흐의 이 저서는 1900년 이후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호프만스탈의 『편지 Ein Brief』

나라 체험에서조차도 “인간중심적 태도의 해체”를 초래한다.

체험이 인간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 누가 오늘 날 아직도 그의 분노가 정말 그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이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 말이다?! Hat man nicht bemerkt, daß sich die Erlebnisse vom Menschen unabhängig gemacht haben? [...] Wer kann da heute noch sagen, daß sein Zorn wirklich sein Zorn ist, wo ihm so viele Leute dreinreden und es besser verstehen als er?! (MoE I, 150)<sup>11)</sup>

무질은 그 시대의 이러한 상황을 소설에서 “인간 없는 특성들의 세계 Welt von Eigenschaften ohne Mann”(ebd.)라고 표현한다. 실증주의의 정신이 초래한 것은 결국 “지식의 획득과 삶의 상실”<sup>12)</sup>이다. 이 말로 무질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그들의 이성비판에서 ‘계몽의 변증법’<sup>13)</sup>으로 묘사한 현대세계의 한 양상이다. 도구적 이성이라 특징지을 수 있는 계몽주의의 이성은 단순히 사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본질상 균질화하고 계량화하는 이성이다.<sup>14)</sup> 이것은 자연을 인간의 공식과 법칙으로 인간의 지

---

(1902)도 그 한 예이다. 특히 헤르만 바아의 글 『구출할 길 없는 자아 Das unrettbare Ich』(1904)는 마흐의 철학과 처음으로 대결했으며 이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글에서 바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아는 구출할 길이 없다. 이성은 옛 신들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대지를 권좌에서 몰아내었다. 이제 이성은 우리조차도 말살시키려고 위협한다. Das Ich ist unrettbar. Die Vernunft hat die alten Götter umgestürzt und unsere Erde entthront. Nun droht sie auch uns zu vernichten” (Hermann Bahr: Das unrettbare Ich. In: Die Wiener Moderne, S. 148). 무질은 그러나 여기에서 마흐의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학문들이 또한 인간을 “전형적인 행동방식들의 전형적인 꾸러미”(MoE II, 1575)로 해체한다고 본다.

- 11) Musil: Der Mann ohne Eigenschaften (1930/32). Hrsg. von Adolf Frisé. Reinbek b. Hamburg 1987 (이하에서는 MoE 라는 약어로 표기하고 쪽수 병기. MoE I는 작가의 생전에 출판된 부분을, MoE II는 유고를 말함.)
- 12) Musil: Das hilflose Europa, In: EuR, 1083.
- 13) Vgl. M. Horkheimer / Th.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In: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d. 3, Hrsg. von R. Teidemann. Frankfurt a. M. 1982, S. 19-60.
- 14) Vgl. W. Welsch: Vernunft. Frankfurt am Main 1996, S. 78.

배하에 종속시킴으로써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인간을 외적인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서도 동시에 내적인 자연을 – 무질의 표현을 빌자면 이것은 그 본질상 ‘이성과 유사하지 않은 nicht-ratioñd’ 어떤 것이다– 새로운 “체계의 폭력”<sup>15)</sup>으로 억압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에 따르면 계몽은 인간을 “세계의 탈마법화”<sup>16)</sup>를 통해 신화적 힘들로부터 해방시키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 신화로 되돌아가고 만다.<sup>17)</sup>

계몽과 이성이 야기한 이런 부정적인 상에 맞서 ‘현대’로부터의 탈출이 시도된 것은 당연하다. 과학적 ‘이성 Ratio’과 더불어 증가하는 삶의 무의미성은 이제 ‘이성의 타자 das Andere der Vernunft’를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심급으로 나타나게 한다. 무질의 ‘다른 상태 anderer Zustand’라는 개념은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 das Dionysische’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인간이 과학과 도덕규범이라는 객관적 규정에서 벗어나 주체와 객체의 합일을 체험하는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창조 상태이다. 이 상태는 더욱이 무질에게 있어서 이념들의 산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수의 세계관들이 종교의 대용물로 생겨난다. 하지만 이들은 유행처럼 왔다가는 사라지고 또한 존재하는 동안에는 서로 반목한다. 이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생산해내는 실증주의의 정신과 수많은 비합리적인 운동들, 즉 ‘신비주의’가 “그 시대의 정신적 무질서 geistige Unordnung jener Zeit”<sup>18)</sup>를 이룬다. 무질의 시대진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의미에서의 계몽의 변증법보다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현대의 변증법’과 –결국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테제도 베버에서 출발한다<sup>19)</sup>– 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베버에 따르면, 현대는 경험과학을 통한 탈마법화와 합리화의 시대이다. 이것은 전통

15) Th.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d. 3, S. 56.

16) Ebd. S. 19.

17) Vgl. ebd., S. 44.

18) Musil: Fallengelassenens Vorwort zu: Nachlaß zu Lebzeiten, In: PAA, 961.

19) Vgl. J. Habermas: Philosophischer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 a. M. 1988, S. 134.

적인, 단일종교의 세계상(의미질서)을 붕괴시켰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의 구속력 있는 의미부여심급이나 가치부여심급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과학은 “삶의 문제 *Lebensproblem*”<sup>20)</sup>에 관한 한 어떤 해결책도 제공하지 못하며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sup>21)</sup> 그래서 베버는 ‘과학의 합리성과 지성주의로부터의 구원’은 신적인 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한다.<sup>22)</sup> 사람들은 이제 “비합리적인 것의 영역”을 발견하고 “체험”<sup>23)</sup>을 얻으려고 애쓴다. 더불어 “개개인은 무엇이 그의 신이고 무엇이 악마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삶의 모든 질서를 통틀어 관철되어야만 한다.”<sup>24)</sup> 막스 베버는 무질이 ‘그 시대의 정신적 무질서’라고 표현하는 것을 니체의 말을 빌려 가치의 “다신주의 *Polytheismus*”<sup>25)</sup>라고 부른다. 다신주의는 니체에 따르면 “신을 창조하는 놀라운 기술이자 힘”<sup>26)</sup>인데 니체는 바로 여기에서 개개인이 모든 것을 균질화하는 도구적 이성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본다.<sup>27)</sup> 현대의 변증법이란 (베버의 의미에서) 탈마법화와 탈신화화의 과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서로 이질적인 수많은 세계관들이 생겨나고 “비합리적인 것의 지성주의적 낭만주의 *intellektualistische Romantik des Irrationlen*”<sup>28)</sup>, 즉 ‘신비주의’가 현대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다신주의에서처럼 현대에는 가치들과 이념들이 서로 혼재하며 투쟁하고 있다.

---

20) M.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In: 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Hrsg. von J. Winckelmann. Tübingen 1982, S. 604.

21) Vgl. ebd., S. 598.

22) Vgl. ebd.

23) Ebd.

24) Ebd. S. 604: “Der Einzelne hat sich zu entscheiden, welches für ihn der Gott und welches der Teufel ist. Und so geht es durch alle Ordnungen des Lebens hindurch.”

25) Ebd. S. 603.

26) F.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 In: *Sämtliche Werke*, Bd. 3. Hrsg. von G. Colli u. M. Montanri. München 1988, S. 490.

27) Vgl. ebd.

28) M.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S. 598.

수많은 옛 신들이 탈마법화되고 그래서 비인격적인 권력의 형태를 띠고 이제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솟아올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며 서로 다시 그들의 영원한 싸움을 시작한다. Die alten vielen Götter, entzaubert und daher in Gestalt unpersönlicher Mächte, entsteigen ihren Gräbern, streben nach Gewalt über unser Leben und beginnen untereinander wieder ihren ewigen Kampf.<sup>29)</sup>

무질은 막스 베버가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소설에서 “영원한 믿음의 전쟁 Glaubenskrieg in Permanenz”(MoE I, 1022)이라고 부른다.

## II. 현대세계의 서사적 형상화

무질은 소설에서 ‘카카니엔 Kakanien’을 위의 그 ‘영원한 전쟁’이 일어나는, 신이 부재하는 현대에 대한 알레고리로 묘사한다. 합스부르크 왕조가 통치하는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k. k. 혹은 k. u k.)에서 황제는 현대사회에서 신과 마찬가지로 제국을 결속시키는 힘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다. 그 때문에 카카니엔 국민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실존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감정”(MoE I, 35)을 갖고 있다. 그래서 카카니엔에 속한 다양한 민족들은 과편적인 존재근거를 찾고 카카니엔을 개별민족의 싸움터로 만든다. 소설 제 1부의 중심사건인 “평행운동 Parallelaktion”은 분열된 카카니엔을 “통일시키는”(MoE I, 93) 하나의 이념을 찾으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대의 변증법을 벗어나려는 이 시도는 소설에서 현대의 변증법, 즉 시대의 정신적인 무질서를 눈앞에 보여주는 계기로만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질서를 포괄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정신에 대한 비판이다. 무질이 “시세상승 예상투기 Spekulationen à la hausse”(MoE I, 410)라고 부르는 첫 번째 조류는 문화적, 사회적 합리화를 거부하

---

29) Ebd., S. 605.

고 계몽주의 이전의 입장으로 회귀하기를 소망한다. 이성의 타자의 체험은 이 조류의 대표자들에게서는 형이상학 (아른하임), 기독교적 도그마틱 (린드너) 그리고 원시적인 미신 (한스 쟈의 반유대주의)과 우상숭배 (라헬과 즐리만)로의 회귀를 낳는데, 무질은 이것을 신비적 체험을 “잘못 다룬 것”(MoE II, 1845)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연역적인 세계상으로서의 이러한 퇴행은 현대 사회를 폭파시키지 못하고 -만하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며<sup>30)</sup>- 결국에는 시대의 무질서를 강화시킬 뿐이다. 니체의 숭배자인 클라리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조류와 대립하는 두 번째 조류인 급진적인 반현대를 대변한다. 클라리세는 미학적인 순간으로서의 ‘다른 상태’만을 긍정하는데, 이것은 현대사회로부터의 급진적 단절을 의미하고 무정부주의를 낳게 된다. 무질이 “시세하락 예상투기 *Spekulationen à la baisse*”라고 부르는 세 번째 조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아른하임과 레오 피셀), 현실정치 및 관료주의 (라인스도르프 백작과 투치)로 나타난다. 이 조류는 도구적 이성을 신뢰하지만 이것에 삶을 형상화하는 권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sup>31)</sup>

### 30) 각주2 참조.

31) 하버마스는 현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세 가지 상이한 경향들을 서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모두 보수주의로 지칭한다. 여기서 전현대주의자들은 노장보수주의자들, 반현대주의자들은 소장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후기현대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자들로 불린다. 하버마스의 이 보수주의의 ‘유형학’의 근거는 ‘미학적’ 현대와 문화적 현대의 구별이다. 전자는 1850년 이후의 전위예술의 모더니즘을 의미하고 후자는 막스 베버와 연관해서 개별적인 고유의 합리성을 발전시킨 근대의 세 영역들, 즉 과학과 도덕 그리고 예술의 구분을 의미한다. ‘노장보수주의자들’이 문화적 현대에서 실제적인 이성이 붕괴된 것을 한탄하면서 현대 (계몽주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반면,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현대화’, 기술적 진보, 경제적 성장, 합리적 해명들을 긍정하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와 달리 ‘소장보수주의자들’은 미학적 현대를 내세우며 현대세계 전반으로부터 탈출한다. 이들은 상상, 자기경험, 정서의 즉흥적인 힘들을 멀리 고대적인 것 속으로 옮겨놓고 권력에의 의지나 자주성, 존재 혹은 시적인 것의 디오니소스적인 힘 등 연상 작용으로만 접근 가능한 원리들을 도구적 이성에 대립시킨다. 프랑스에서는 니체의 정신 속에서 바타이유에서 시작하여 푸코를 거쳐 데리다에까지 이르는 노선이 생긴다 (Vgl. J. Habermas: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In: W. Welsch (Hrsg.): *Wege aus der Moderne*, Weinheim 1988, S. 179-191). -무질 또한 벌써 현대의 프로젝트의 실패의 결과들을 알고 있었다. “합리적인 구조가 실패한 이후에 비합리적인 것, 사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향한 욕구가 뒤따라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과 대결하며 현대에 새로운 합법적 구심점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평행운동’은 결국에는 전쟁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전쟁은 이제 파편화된 세계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체험”<sup>32)</sup>으로 일어나지만 이 체험은 현대사회의 집단적 붕괴를 의미한다.

### Ⅲ. 종합을 위한 구상

파편화된 시대에 대항하는 무질의 전략은 유토피아주의와 유토피아이다. 무질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현대의 문제를 슈팽글러 식으로 ‘서구의 몰락’의 징후로 보는 비관적 태도의 극복이라고 보았다.<sup>33)</sup> 그래서 중요한 것은

---

있는 사실이다. Es ist begreiflich, daß nach einem Fehlschlag des rational Konstruktiven ein Bedürfnis nach dem Irrationalen, nach Tatsachenfülle, nach Wirklichkeit folgt” (Musil: Das hilflose Europa, EuR, 1082).

- 32) Tb I, 544. 무질은 여기에서 전쟁을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다. 그는 「전쟁의 끝 Das Ende des Krieges」(1918)이라는 에세이에서 전쟁을 “보다 고귀한 삶의 내용이 결핍”(EuR, 1343)된 것의 결과로 선언한다. “전쟁은 모험의 도취로 그리고 멀리에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안의 광채를 띠고 인간을 떨친다. 그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를 종교적 체험이라고 불렀으며 조건이 좁은 사람들을 이를 합일시키는 체험이라고 불렀다. 내부 깊은 곳에서 마치못해 견뎌내고 있던 삶의 조직형태들이 전쟁 속에서 깨어지고 인간은 인간들과 융해되며 불분명함은 불분명함과 융해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당파도 짓지 않게 된 것을 신에게 감사드리며 곧 나와 너 그리고 그 주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형성물 또한 더 이상 알지 못하기를 희망한다. Deshalb kam der Krieg mit dem Rausch des Abenteurers über ihn, mit dem Glanz ferner unentdeckter Küsten. Deshalb nannten ihn solche, die doch nicht geglaubt hatten, ein religiöses Erlebnis, nannten ihn die Vermauerten ein einigendes Erlebnis. Die im Innersten ungenutzte Organisationsform des Lebens zerging, Mensch verschmolz mit Menschen, Unklarheit mit Unklarheit, man kannte, Gott gedankt, keine Parteien mehr und hoffte bald Ich und Du und alle darum herum geknüpften Gebilde auch nicht mehr zu kennen” (EuR, 1344).
- 33) 무질은 그의 에세이 「정신과 경험. 서구의 몰락에서 빠져나온 독자들을 위한 글 Geist und Erfahrung. Anmerkungen für Leser, welche dem Untergang des Abendlandes entronnen sind」(1921)에서 그 당시 보편적으로 애호되던 아루투어 슈팽글러의 『서구의

인간중심의 사고를 회복하는 것, 즉 계몽의 변증법으로 잃어버린, 인간의 정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성 없는 남자 Mann ohne Eigenschaften’이다. 특성 없는 남자는 “특성들을 소유하는 것이 그 특성들의 현실성에 대한 어떤 기쁨을 전제하기 때문에” 특성의 소유를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현실감각을 갖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다 (MoE I, 18). 이렇게 그는 공식의 체계들로 이루어진 주체를 거부하고 ‘자주적 주체 Souverän’로서 등장한다. 무질은 특성 없는 남자의 이 감각을 “가능성감각 Möglichkeitssinn”(MoE I, 16)이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유평피아주의를 인류학적으로 뿌리내리게 한다. 이렇게 인간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한 가능성감각을 통해 무질은 본래적인 인간의 정신이 사실들에만 자족하는 ‘실증주의의 정신’이 아니라 창조적인 정신임을 강조한다. 무질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에 대한 믿음은 마지막으로 계몽주의 시대에서 관찰된 바 있다.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인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방시키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이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 그들은 전승된 것을 하찮게 여겼으며 세계를 정신을 통해 새로이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In jenem ausgehenden 18. Jahrhundert glaubten die Menschen an etwas in uns, das nur befreit zu werden braucht, um emporzuschellen. Sie nannten es die ‘Vernunft’ [...]; sie schätzten Überlieferungen gering und trauten sich zu, die Welt aus dem Geist neu aufzubaun.<sup>34)</sup>

물론 ‘세계를 정신을 통해 새로이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계몽이라는 프

---

몰락 Untergang des Abendlandes(1918)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슈펜글러는 세계사를 동식물의 발전단계들과 유사하게 변형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유년기, 상승기, 절정기, 몰락’- 서양의 ‘파우스트적인’ 문명은 19세기를 그 정점으로 하고 이제 몰락의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는 당시의 상태를 현대 인간의 ‘숙명’으로 긍정한다. 반면에 무질은 당시 유럽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몰락’이 아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행과정”(EuR, 1367)으로 보았다.

34) EuR, 1082.

로젝트는 실패했다. 무질은 실패의 이유가 “이 시도가 너무나 좁은 사고의 토대위에서 행해”<sup>35)</sup>졌다는데 있다고 보았다.<sup>36)</sup> 그는 유토피아주의라는 개념으로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미 상실된 믿음을 복원하려고 시도한다. 삶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이성의 능력을 의문시하고 이성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려는 ‘낭만주의적 이성비판’<sup>37)</sup>과는 달리 무질의 이성비판은 이렇게 보면 이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재적인 이성비판이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토피아 구상들은 “전체의 질서”(MoE I, 27)을 얻으려는 정신적 “실험”(MoE I, 246)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가능한 현실”(MoE I, 17)이다.

전체를 위한 주요테마는 그러니까 가능성인간의 현실과의 대결이다. 이 대결은 3가지 유토피아를 생기게 한다. 이는 귀납적 의식의 유토피아. 사랑 속에서의 다른 (비이성적인, 동기화된 등등) 삶의 유토피아. [...] 순수한 다른 상태의 유토피아. *Ein Hauptthema für das Ganze ist also: Auseinandersetzung des Möglichkeitsmenschen mit der Wirklichkeit: Sie ergibt 3 Utopien: Die Utopie der induktiven Gesinnung. Die Utopie des anderen (nicht ratioñden, motivierten usw) Lebens in Liebe. [...] Die Utopie des reinen aZ.*<sup>38)</sup>

35) Ebd.

36) 하버마스도 또한 1980년 아도르노상 수상연설에서 “현대의 기획 Projekt der Moderne”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계몽의 프로젝트 Projekt der Aufklärung” (J. Habermas: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S. 183)로 소급시킨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 계몽철학자들에 의해 표명된 현대의 기획은 객관적인 과학들, 보편화된 도덕과 법률의 근거를 그리고 자율화된 예술이 그들의 각자의 고유한 감각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거기에 모이는 인식적인 잠재력들을 그들의 비교(秘敎)적 형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실천을 위해, 즉 삶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이다(vgl. ebd., S. 184). 이미 ‘탈현대 Postmoderne’를 외쳐대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하버마스에게는 “이 문제는 [...] 여전히 남아 있으며”(ebd.) 그 완성을 고집한다.

37) Vgl. Welsch: Vernunft, S. 36. 벨쉬는 이성비판의 전통에서 플라톤적, 칸트적 그리고 낭만주의적 유형을 구분한다. 칸트적-계몽주의적 이성비판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내재적 비판인 반면에 낭만주의적 변형은 이성과는 ‘다른 심급의 이름으로 하는’ 외부로부터의 이성에 대한 비판이다.

38) MoE II, 1881f.

‘귀납적 의식의 유토피아’는 소설에서 다시 “정확한 삶의 유토피아 Utopie des exakten Lebens”(MoE I, 244)와 “에세이주의의 유토피아 Utopie des Essayismus”(MoE I, 247)로 세분된다. 본고는 상이한 유토피아들이 ‘귀납적인 의식의 유토피아’라는 상위 카테고리 아래 서로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며,<sup>39)</sup> 이 ‘귀납적 의식의 유토피아’를 본래적 의미에서 ‘현대의 기획’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의 기획을 “종교의 합일시키는 힘을 이성을 수단으로 재할시키려는”<sup>40)</sup> 사업으로 이해한다면 이 유토피아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경험과학의 방법인 귀납적인 처리방법이 삶의 원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단일한 종교적 세계상을 붕괴시키고 현대의 다신주의를 생기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다시 이 다신주의를 지양하는데 사용된다. 무질은 배버처럼<sup>41)</sup> 과학이 삶의 의미와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지만 “올바른 삶에 대한 질문”(MoE I, 255)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sup>42)</sup>

무질은 방법론적 관점에서 경험과학의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하였다. 그 하나는 단수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유의하는 정확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39) 이에 대해서는 줄저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에 나타난 “의식적 유토피아주의” Der “bewußte Utopismus” im Mann ohne Eigenschaften von Robert Musil』, Königshausen & Neumann Würzburg 2007 참조.

40) J. Habermas: Philosophischer Diskurs der Moderne, S. 31.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계기들에서 서로 갈라진 이성들 (칸트의 세 가지 비판들 참조)의 통합이 ‘역사적인 문제로서’ 의식되게 되는데 그 시초는 헤겔이다. 헤겔은 ‘모범상을 갖지 못한 현대가 그 스스로 생겨나게 한 이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속에서 ‘그의 철학의 기본문제’를 보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계몽의 변증법’이다. 이로써 그는 ‘현대의 철학적 담론’을 개시한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현대의 기획’이라는 말 대신에 -왜냐하면 그는 이 표현을 이미 다른 연관성속에서 용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주36 참조).-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물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와는 다른 의미에서이다.

41) Vgl. M.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S. 607.

42) 막스 베버는 모든 과학적 인식의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을 ‘개념’과 ‘합리적인 실험’으로 보았다. 개념은 소크라테스가 그 영향력을 발견한 것이며 합리적인 실험은 “믿을만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의 수단”(Weber, ebd., S. 596)으로서 이것이 없이는 오늘날의 경험적 과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얻은 발언을 가정적으로 남아있게 하는 개방성이다.<sup>43)</sup> “정확한 삶의 유토피아”와 “에세이주의의 유토피아”는 위의 두 계기, 즉 개방성과 정확성을 삶의 원리로 하는 ‘귀납적인 유토피아’의 첫 두 양상들이다. 우선 정확성은 개인과 개인의 체험을 윤리적 근원으로 수용함으로써 연역적 세계상을 해체한다. 개방성은 개별적인 가치들의 절대화를 막고 파편적인 이념들을 종합하는 전제가 된다. 이 개방성은 정확한 삶의 유토피아에서는 “상승의 의식”(MoE I, 304)으로, 에세이주의의 유토피아에서는 ‘다중시점주의 Polyperspektivismus’로 실현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유토피아는 전체의 질서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을 체계의 폭력으로 억압하지 않으며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도 진보와 진리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들이다.

---

43) 칼 포퍼는 그의 『연구의 논리 Logik der Forschung』(1934)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원리에 경험적 과학의 방법론적 본질이 있다고 본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방법론’, 즉 ‘연구의 논리’에서 ‘귀납의 논리적 문제, 즉 귀납적 추론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vgl. J. Schröder: Karl Popper. Paderborn 2006, S. 44).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경험적 과학에서는 증명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개연성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귀납적 추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경험이란 것이 결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귀납적 사고를 보증해준다는 자연의 동형성이라는 가정도 귀납적으로는 근거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흄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포퍼는 흄과는 달리 바로 이 점에서 즉, ‘참임을 증명하는 것 Verifikation’이 경험적 과학의 본질이 아니라,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 Falsifikation’이 바로 경험적 과학을 형이상학이나 사이비과학과 구분하는 원리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과학적 이론은 “근거지울 수가 없지만 단지 [...] 검증할 수만 있는” 것이다 (vgl. Karl Popper: Logik der Forschung, Tübingen 2005, S. 21): “과학적 객관성의 요구는 모든 과학적 명제들이 임시적이라는 것이다. Die Forderung der wissenschaftlichen Objektivität führt dazu, daß jeder wissenschaftliche Satz vorläufig ist” (ebd., S. 269). 그래서 과학적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도식을 따른다: P1 → VT → FE → P2. 우선 문제 (P1)는 하나의 임시적인 이론 (VT)을 낳고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반박하여 오류를 제거하고 (FE) 다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P2) 더 나은 이론을 세울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포퍼는 과학의 진보와 진리에의 접근을 옹호한다.

#### IV. 공통점과 차이점

무질의 귀납적 유토피아 구상은 이성의 타자, 즉 개인의 체험을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이것이 귀납적 의식의 한 측면인 정확성의 실현이다- 니체와 프랑스 후기구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반현대적인 조류와 유사성을 보인다. 소설의 제 1부의 중심인물인 모스브루거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구현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가 보여주는 ‘다른 상태’는 니체의 후계자인 바타이유가 “이질적인 실존 *heterogene Existenz*”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한다.<sup>44)</sup> 모스브루거는 바타이유 식으로 말하자면 동질화된 사회에서 추방된 요소들을 대변하며 동질적인 사회의 이성적 한계, 즉 금기와 터부의 경계를 넘어서나. 모스브루거의 경계 넘기는 성 *Sexualität*과 광기를 드러내는데, 나중에 푸코는 바타이유를 계승하면서<sup>45)</sup> 이 속에서 이성의 타자를 발견한다. 그러나 울리히가 모스브루거와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려는 니체 추종자인 클라리세에게 보이는 거리는 니체에 대한 무질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무질은 ‘다른 상태’를 내적인 자연과 외적인 자연이 합일된 자주적인 -바타이유에게서 경계 넘기는 주체성을 참된 자주성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46)</sup>- 상태로 파악하긴 하지만, 또한 모스브루거에게서 ‘다른 상태’의 문제

44) 바타이유는 과학과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그 ‘동질화의 경향 *tendenzielle Homogenität*’에 있다고 보고 동질적인 사회와 과학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들을 ‘이질적인 것 *das Heterogene*’라고 부른다. ‘이질적인 것’은 ‘동질적인 세계가 밀어내는’ 모든 것, 즉 성스러운 것들, 쓰레기 혹은 배설물들, 에로틱한 몸의 부위 혹은 행위들, 꿈이나 노이로제와 같은 무의식적인 과정들과 모든 종류의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개인들 (미친 자들, 선동가들, 작가들 등)을 포괄한다. 폭력과 무질체, 정신착란과 광기로 바타이유는 서로 다른 정도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특징짓는다 (vgl. Bataille: *Psychologische Struktur des Faschismus* (1933). *Die Souveränität* (1956). Hrsg. von E. Lenk. München 1978, S. 10-17). 이 ‘이질적인 것’은 무질의 소설에서는 합리적으로 질서 지워진 삶의 “비합리적인 잔여물 *irrationaler(n)r Rest*” (MoE I, 522)로 표현되며 모스브루거 이외에도 거식증에 걸린 레오나, 색정증여성인 보나데아 등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45) Vgl. Michel Foucault: *Die Ordnung des Diskurses*, Frankfurt a. M. 2003, S. 17.

접도 인식한다. 한편으로는 바타이유가 “근원적인 폭력성의 분위기”<sup>47)</sup>로 긍정하는 ‘다른 상태’에 내재된 폭력성이 비판된다. 다른 한편으로 바타이유는 순간적인 황홀상태를 수긍하고, 이로써 또한 자기보존(금지)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해체(위반) 사이의 진동으로서의 사회모델을 긍정한다.<sup>48)</sup> 반면에 무질의 유토피아는 바로 이러한 감정과 문화의 “의미 없는 순환”(MoE II, 1248)을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더우기 이 상태는 -바타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주목하는데<sup>49)</sup>- 과시즘으로 빠질 위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소설에서는 클라리세와 ‘지도자 인물 Führerfigur’인 마인가스트와의 관계에서 형상화된다.

무질은 이성의 타자의 유토피아적 잠재력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는<sup>50)</sup> 바타이유와는 달리 그것을 전체 사회를 위해 구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상태’가 그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현상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영원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무질은 정원에서의 오누이의 체험(‘천년왕국’의 도달)을 소설 제 2부의 사건의 절정으로 설정한다. 모스브루거에 대한 울리히의 입장 외에도 이렇게 무질이 울리히와 아가테 사이의 근친상간이라는 경계 넘기의 체험 대신에 정원에서의 명상적인 체험을 소설의 절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니체에 대한 그의 비판적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정원-체험은 ‘다른 상태’가 활동적인 전개(“사랑 속에서의 동기화된 삶의 유토피아”)와 명상적인 전개(“다른 상태의 유토피아”)라는 두 가지 전개 형식을 가질 수 있음과 명상적인 상태는 ‘다른 상태’가 도덕(이웃사랑) 및 이성과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니체는 그의 디오니소스 구상에서 도덕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을 혐오하고

46) Vgl. Bataille: Die Souveränität, S. 47f.

47) Bataille: Erotik (1957). Hrsg. von G. Bergfleth. München 1994, S. 19.

48) Vgl. Bataille: Die Souveränität, S. 52f. 바타이유는 인간의 세계를 “위반과 금지로 이루어진 혼합체, [...] 모순적인 움직임들의 체계 Zwitterform aus Überschreitung und Verbot, [...] ein System widersprüchlicher Bewegungen”(ebd., S. 54)로 정의한다.

49) Vgl. Bataille: Psychologische Struktur des Faschismus.

50) Vgl. ebd., S. 16f.

있다.<sup>51)</sup> 그러나 명상적인 상태는 죽음에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 -이 상태는 “정물화 Stilleben”(MoE II, 1230)에 비유된다- 그 스스로 사회적인 삶의 담지자가 될 수는 없다. 이 상태가 실제적인 삶에서 갖는 중요한 기능은 이것이 귀납적 삶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세계상을 예감하게 하고<sup>52)</sup> ‘다른 상태’를 긍정함으로써 그것의 활동적인 전개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체험과 그로 인해 생긴 이념들은 “부분진리 Teilwahrheiten”(MoE I, 1020)로 인정받고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총체적 해결책, 즉 “올바른 삶의 법칙”(MoE I, 825)이 기대된다. 하지만 활동적인 삶은 그 편에서는 자신의 우연성과 순간성을 인정하면서 귀납적인 의식, 즉 “연구의 정신”<sup>53)</sup>을 갖고 “끊임없는 공동작업”(MoE I, 873f.)을 할 의무를 지닌다. 귀납적 의식을 지닌 삶은 늘 현재성 속에서 전개되지만 (“동기화된 삶의 유토피아”) 또한 상승과 먼 곳에 있는 목표 (신)로의 접근이라는 의식 하에 이루어진다. 이 때 신은 살아가는 모든 가능성들이 소진된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이 가능한 “귀납적인 신 der induktive Gott”(MoE II, 1925)이다. 이 소설은 이러한 ‘귀납적인 의식의 유토피아’를 통해 현대의 계몽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 즉 과학과 종교의 합일을 이루어낸다.

51) Vgl. Habermas: Philosophischer Diskurs der Moderne, S. 119f.

52) ‘다른 상태의 유토피아’는 이렇게 해서 모든 귀납적 체계가 필요로 하는 연역적 계기가 된다. 무질은 연역적 계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귀납은 미리-가정하기를 필요로 한다”(MoE II, 1860, 1930); “*연역적인 요소가 없이는 귀납은 없다.*”(Tb I, 819).

53) MoE II, 1883. 달리 표현하자면 이는 “극도의 공손함과 겸손함 (=귀납적인 겸허)”(MoE II, 1919)이고 이 맥락에서 무질은 “정중함의 유토피아 Utopie der Höflichkeit”(MoE II, 1918)를 말한다.

## ■ 참고문헌

### 일차문헌

Robert Musil: Der Mann ohne Eigenschaften. Hrsg. von Adolf Frisé. Neudurchgesehene und verbesserte Ausgabe 1978. Sonderausgabe. 2 Bde.: Reinbek b. Hamburg: Rowohlt 1987 [Text- und seitenidentisch mit Bd. 1-5 der *Gesammelten Werke*].

\_\_\_\_\_: Gesammelte Werke. Hrsg. von Adolf Frisé. 2. verbesserte Ausgabe. Reinbek b. Hamburg 1981:

Bd. 1-5: Der Mann ohne Eigenschaften.

Bd. 6: Prosa und Stücke.

Bd. 7: Kleine Prosa. Aphorismen. Autobiographisches.

Bd. 8: Essays und Reden.

Bd. 9: Kritik.

\_\_\_\_\_: Tabebücher 1. Hrsg. von Adolf Frisé. Neu druchgesehene und ergänzte Aufl. Reinbek Hamburg: Rowohlt 1983.

\_\_\_\_\_: Beitrag zur Beurteilung der Lehren Machs und Studien zur Technik und Psychotechnik. Reinbek b. Hamburg 1980.

### 이차문헌

Bahr, Hermann: Das unrettbare Ich. In: Die Wiener Moderne. Literatur, Kunst und Musik zwischen 1890 und 1910. Hrsg. von Gotthart Wunberg unter Mitarbeit von Jonannes J. Braakenburg. Stuttgart: Reclam 1981, S. 147f.

Bataille, Georges: Die psychologische Struktur des Faschismus. Die Souveränität. Hrsg. von Elisabeth Lenk. Aus dem Französischen von Rita Bischof, Elisabeth Lenk, Xenia Rajewsky. München: Matthes & Seitz 1978.

\_\_\_\_\_: Die Erotik. Hrsg. von Gert Bergfleth. München: Matthes & Seitz 1994.

- Bloch, Ernst: Das Prinzip Hoffnung. Bd. 1: Kap. 1-32, Bd. 2: Kap. 33-42, Bd. 3: Kap. 43-55. 5.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Suhrkamp-Taschenbuch Wissenschaft. 554).
- Fanta, Walter: Die Entstehungsgeschichte des „Mann ohne Eigenschaften“ von Robert Musil. Wein, Köln, Weimar 2000.
- Foucault, Michel: Die Ordnung des Diskurses. Aus dem Franzoesischen von Walter Seitter. Mit einem Essay von Ralf Konersmann. 9. Aufl. Frankfurt a. M.: Fischer 2003.
- Habermas, Jürgen: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Zwölf Vorlesungen. Frankfurt a. Main: Suhrkamp 1988 (Suhrkamp-Taschenbuch Wissenschaft. 749).
- \_\_\_\_\_: 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 In: Wolfgang Welsch (Hrsg.): Wege aus der Moderne. Schlüsseltexte der Postmoderne-Diskussion. Weinheim: VCH, Acta humaniora 1988, S. 177-192.
- Horkheimer, Max und Adorno, Theodor W.: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In: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d. 3. Hrsg. von Rolf Tiedemann. Frankfurt a. M. Suhrkamp 1981.
- Mach, Ernst: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und das Verhältnis des Physischen zum Psychischen 9. erweiterte Aufl. Jena 1900.
- Mannheim, Karl: Ideologie und Utopie. 4., erweiterte Aufl. Frankfurt a. M.: Schulte-Blumke 1965.
- Nietzsche, Friedrich: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Einzelbänden. Bd. 3: Morgenröte. Idyllen aus Messina. Die fröhliche Wissenschaft.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nari. München: dtv/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8, S. 490.
- Popper, Karl: Logik der Forschung. Hrsg. von Herbert Keuth. 11. 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Ruyer, Raymond: Die utopische Methode. Aus: L'Utopie et les Utopies. Prais 1950. Übers. von Arnhelm Neustüss in Zusammenarbeit mit P.

- Weber. In: Arnhelm Neustüss (Hrsg.): Utopie. Begriff und Phänomen des Utopischen. Neuwied, Berlin: Luchterhand 1968, S. 339-360.
- Schöne, Albrecht: Zum Gebrauch des Konjunktivs bei Robert Musil. In: Rudolf Villgratder und Friedrich Krey (Hrsg.): Der utopische Roman. Darmstadt: Wiss. Buchges. 1973, S. 355-388.
- Schröder, Jürgen: Karl Popper. Paderborn: mentis 2006.
- Voßkamp, Wilhelm (Hrsg.): Utopieforschung. Interdisziplinäre Studien zur neuzeitlichen Utopie. Bd. 1-3.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5.
- \_\_\_\_\_: „Grundrisse einer besseren Welt.“ Messianismus und Geschichte der Utopie bei Ernst Bloch. In: Stéphane Moses und Albercht Schöne (Hrsg.): Juden in der deutschen Literatur. Ein deutsch-israelisches Symposium.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 \_\_\_\_\_: „Wenn es Wirklichkeitssinn gibt, muß es auch Möglichkeitssinn geben.“ Traditionen des utopischen Denkens bei Robert Musil. In: Friedrich Jäger und Jürgen Straub (Hrsg.): Was ist der Mensch, was Geschichte? Annäherungen an eine kulturwissenschaftliche Anthropologie. Jörn Rüsen zum 65. Geburtstag. Bielefeld: transcript 2005, S. 347-362.
- Weber, Max: Wissenschaft als Beruf. In: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Hrsg. von Johannes Winkelmann. 5. erneut durchges. Auflage. Tübingen: Mohr Siebeck 1982.
- Welsch, Wolfgang: Vernunft. Die zeitgenössische Vernunftkritik und das Konzept der transversal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6.

<Zusammenfassung>

## Die Utopiekonzeption im *Mann ohne Eigenschaften* und ihre problemgeschichtliche Einordnung

Jiyoung Shin (Seoul National Univ.)

Robert Musils Roman *Der Mann ohne Eigenschaften* ist mit Blick auf die Utopietradition und die Utopiebegriffe so komplex, daß man ihn geradezu als „Summe abendländischen utopischen Denkens“ (Voßkamp) bezeichnen kann. Dabei hat die Musilforschung bisher vor allem herausgestellt, daß der Utopismus nicht nur Ulrichs Existenzform als die eines „Möglichkeitmenschen“ begründet, sondern auch als Musils Stil- und Schaffensprinzip den ganzen Roman regiert. Indem auf diese Weise aber der Utopismus so sehr in den Vordergrund getreten ist, sind darüber von der Forschung die materialen Utopien des Romans fast völlig vernachlässigt worden. Die diversen in Musils Roman vorkommenden Utopien, von der „Utopie des exakten Lebens“ bis zu der des „anderen Zustands“, wurden bisher entweder nur als Funktionen des „Möglichkeitssinns“ betrachtet, oder es wurde als einzige die Utopie des „anderen Zustands“ als subjektive und augenblickshaften Privatutopie ernst genommen. Dagegen erhellt eine inhaltliche Untersuchung der Gesamtheit der Utopien im *Mann ohne Eigenschaften*, daß diese einander nicht einfach nacheinander ablösen, sondern die verschiedenen Utopien funktional voneinander abhängen und sich unter die oberste Kategorie der „Utopie der induktiven Gesinnung“ fügen. Die Erhellung dieser Zusammenhänge fördert desweiteren zutage, daß Musil mit diesem System von Utopien auf nichts anderes als auf die Überwindung der

Dialektik der Moderne, also der in „Ratio und Mystik“, die Vernunft und ‚das Andere‘ der Vernunft auseinandergefallenen modernen Welt, zielt.

Nach Musils eigener Darstellung werden im „MoE“ „die Sinnfragen der Existenz des modernen Menschen [...] aufgeworfen und in einer ganz neuartigen, aber sowohl leicht-ironischen wie philosophisch tiefen Weise beantwortet“. Musil sieht seine Zeit in „Rationalität u. Mystik“ polarisiert. Mit der ‚Rationalität‘ meint Musil den „Geist der Positivität“ der Tatsachwissenschaften, der die Dinge und Menschen in Formelsysteme auflöst und damit auch das „anthropozentrische Verhalten“ („Es ist eine Welt von Eigenschaften ohne Mann entstanden“). Das Ergebnis ist: „Gewinn an Wissen, Verlust an Leben“. Aus Furcht vor der wachsenden Sinnlosigkeit des Lebens durch die wissenschaftliche Ratio tritt das ‚Andere der Vernunft‘ als Instanz der Sinnggebung auf. Der „andere Zustand“ bei Musil ist der moralische, ästhetische Schöpfungszustand, in dem der Mensch von seiner objektiven Bestimmung durch die Wissenschaft und normative Moral befreit ist und die Vereinigung von Subjekt und Objekt erlebt. Aus ihm geht eine Vielzahl partikularer Weltanschauungen als Ersatzreligion hervor, die aber wie die Mode kommen und gehen. So macht die Fülle an Tatsachwissen einerseits und der „Polytheismus“ der Werte (Max Weber) andererseits die „geistige Unordnung jener Zeit“ und die Dialektik der Moderne aus. Als Allegorie der gottlosen, metaphysikfreien modernen Welt stellt der Roman „Kakanien“ vor, dessen Bewohner sich „ständig im Gefühl der unzureichenden Gründe der eigenen Existenz“ befinden. Die „Parallelaktion“, das Ereignis im ersten Band des Romans, ist das kakanische Unternehmen, eine „vereinheitlichende“ Idee zu finden.

Musils Strategie gegenüber dieser Zeitproblematik ist der Utopismus und die Utopie. Musil stellt mit dem Mann „ohne Eigenschaften“ (Ulrich) das in Formelsysteme aufgelöste Subjekt als Souverän wieder her und verankert mit dem „Möglichkeitssinn“ den Utopismus anthropologisch. Die

verschiedenen Utopien im Roman sind das der ‚Parallelaktion‘ entsprechende Projekt Ulrichs, dessen übergreifende Struktur die „Utopie der induktiven Gesinnung“ bildet. Wenn man unter dem Projekt der Moderne, der Aufklärung, dasjenige Unternehmen versteht, „die vereinigende Kraft der Religion im Medium der Vernunft zu regenerieren“ (Habermas), so handelt es sich bei der „Utopie der induktiven Gesinnung“ um ein solches Projekt. Denn die induktive Utopie ist der Versuch, mit der Methode der empirischen Wissenschaften (Induktion) die „Frage des rechten Lebens“ zu lösen. Das induktive Vorgehen besteht aus zwei Momenten: Genauigkeit, d. i. das genaue Achten auf die singulären Tatsachen, und Offenheit, d. i. das Hypothetisch-Bleiben der gewonnenen Aussagen; dem entspricht die „Gesinnung des Steigens“ in der „Utopie des exakten Lebens“ und der Polyperspektivismus in der „Utopie des Essayismus“. Das erste Moment schließt das Individuum als ethische Quelle ein und das zweite vermeidet die Verabsolutierung der einzelnen Werte und damit den „Glaubenskrieg in Permanenz“. Um zu einer Synthese zu gelangen, muß aber erwiesen werden, daß der ‚andere Zustand‘ trotz seiner zufälligen und hinfälligen Gestalt an der Ewigkeit und Wahrheit teilhat. Zu diesem Zweck ist das Erlebnis der Geschwister im Garten („Tausendjähriges Reich“), als der Höhepunkt des Ereignisses im zweiten Band des Romans, angelegt. Dadurch werden die partikularen Weltanschauungen als „Teilwahrheit“ anerkannt, durch deren Kombination eine Totallösung, das „Gesetz des richtigen Lebens“, erwartet wird. Es ist dabei eine „ähnlich endlose Zusammenarbeit [...] wie überall in der Forschung“ vonnöten. Das Leben in der induktiven Gesinnung entfaltet sich in der Aktualität („Utopie des motivierten Lebens“) aber mit dem Bewußtsein der Steigerung und Annäherung an das ferne Ziel („Gott“), das erst nach dem Erschöpfen aller Möglichkeiten zu leben erreicht wird.

주제어: 유토피아, 유토피아적인 것, 현대의 변증법, 다른 상태,  
귀납적 의식

Schlüsselbegriffe: Utopie, das Utopische, Dialektik der Moderne,  
anderer Zustand, induktive Gesinnung

필자 Email: mchraplashin@gmail.com

논문투고일: 2007. 9. 30, 논문심사일: 2007. 10. 16, 게재확정일: 2007.10.30.